

## 제 3회 국정토론회 대통령 마무리 발언 요약

### "국민과 소통하며 변화속도 두배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  
일 잘한다는 믿음 심어놓자

1년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시정목표들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관한 여러 원칙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말을 추가하고자 한다. 역시 주제는 변화, 혁신이다. 국민을 위해서 일 잘하는 정부, 공직사회가 되자. 그것이 우리 목표였다. 무엇이 일을 잘하는 것인가. 실제로 일 그 자체 효율성도 아주 높아져야 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양과 질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좀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다양성 있는 조직과 운영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그 당시에 설정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분권과 자율을 강화하자, 그런 목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것이 대체로 일을 잘하는 정부이다. 상당히 잘한 것 같은데 목표는 도달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런 관점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그 성과들을 놓고 정리하지 못해서 매우 아쉽다.

심기일전해서 금년이야말로 성과를 내는 노력을 해보자. 올해 약간 방향을

새로 잡거나 추가하고 싶은 정부의 목표는 ‘신뢰받는 정부’다. 아무리 정부가 일을 잘해도 국민들이 신뢰하고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또 협력해야겠다는 믿음을 주지 않으면 결국 성공할 수가 없다.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책을 정부가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도록 해야 하고 협력하면 이익이 있을 것이고 협력하지 않으면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관념을 국민들이 가지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의 존재 자체와 조직이 하는 일 모두 그야말로 국민들의 신뢰 위에 서야 한다. 잘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 국민의 지혜 빌리고 동의 얻자

토론 주제가 신뢰받는 정부, 그를 위한 일 잘하는 정부, 대화 잘하는 정부로 크게 설정돼 있을 것이다. 일 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오늘 토론이 많이 있었다. 오후에는 대화 잘하는 정부에 관해서 얘기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 실제로 상당히 노력한 것 같은데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시원치 않다. 공부는 잘했는데 시험점수가 잘 안 나온 것 같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시험도 잘 쳐야겠다. 정부가 한 일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와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어야겠다. 그런 것이 생각나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잘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점수를 짜게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시작할 때 그야말로 국민들의 의사를 묻고 조정할 수 있는 이해관계는 최대한 조정해서 불만을 최대한 줄여서 이해관계는 배치되지만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 단계까지 국민의 동의를 끌어올리면 국민들한테 좀 불편한 것도 또는 이해관계에 부딪치는 것도 동의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지혜를 빌리자. 최대한 빌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결과를 정확하게 전달하자. 여러 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소통이 충분치 못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성적도 좀 잘 매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부서간 이견과 갈등, 비협조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부처간에 또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 내에도 많은 대화를 통한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 대통령의 생각과 국무위원 또는 간부들의 생각이 잘 맞아야 하고 그 다음에 실국장들과 잘 맞고 과장급과 잘 맞고 나중에 모든 직원들과 잘 맞도록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이냐, 부처 내에서 수평적으로는 어떻게 생산적인 토론문화가 잘 이루어질 것이냐, 부처와 부처 사이의 문제는 그 동안에 실제로 있어야 될 만한 갈등과 조정이 있었는데도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힘들었지만, 어떻든 부처와 부처 사이에 이해와 협력, 타협과 조정이 잘 이루어지는 일, 이런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공무원들 상호간에 정서와 의사를 활발하게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 자기 發光하는 공직사회

### ‘공무원 토론마당’에 활력 불어넣자

이해관계자, 언론, 국회, 일반국민들에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취지와 효과를 잘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의견도 들어야지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 동안에 잘 전달되지 않거나, 왜곡되게 전달되거나 한 일들이 참 많다. 전달하는 사람이 보기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버리면 전달하지 않는다. 전달하는 사람이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을 비추기를 훨씬 좋아하면 역시 전달이 잘 안된다. 또 별로 문제가 없는 것을 아주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덧칠을 하고 색깔을 입혀서 전달해 버리면 아주 나쁘게 전달돼

버린다.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비판만 받아서 노엽고 힘 빠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것 같다.

고속철도를 만들었으면 사람 태워 다녀야지요? 국민은 고속철도를 타서 좋고, 철도청은 요금을 많이 받아서 수입을 많이 올리고 빚을 빨리 갚아야 좋고, 그래서 대도시의 사람 태워야 한다. 울산은 100만이 살고 있는 도시다. 충청북도 오송도 아주 중요한 곳이다. 그 지역에 열차를 세운다고 난데없이 몰매를 맞았다.

저는 신문을 보고는 인천국제공항이 제대로 문이 열리지도 못하고 국민들한테 빚만 잔뜩 짊어지우고 애물단지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효자노릇을 잘하고 있다. 그 동안에 우리 공직사회가 일 잘하고도 신용을 잃기를 그 얼마만인가.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미디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직사회 바깥에서 잘 해 주기를 바라야 하지만 세상일이라는 것이 가만 앉아 구경만 한다면 잘못돼 있는 것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 뭔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미디어의 중간차단이나 왜곡을 넘고 극복해 어떻게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결국 매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 이웃같은 공직사회, 건교부는 환경부의 일을 잘 모르고 복지부의 일을 잘 모르니까 복지부 정책은 매체를 보고 안다. 그게 아니고 우리도 중요한 쟁점이 생겼을 때 정부 전체의 성공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부처를 뛰어넘어서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무원끼리도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해야 한다. ‘공무원 커뮤니케이션 광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 경험으로 생각하면 심사숙고한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했는데 그

것이 엉뚱하게 전혀 생각지도 못 했던 방향에서 억울하게 납득할 수 없는, 승복할 수 없는 시비를 당하고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비판적인 의견으로 나오면 때로는 장관들한테도 그런 조언을 듣고 청와대 수석들한테서 그런 비판을 들을 때는 정말 난감할 때가 있다. 청와대 비서관들이 모여 앉아 신문 읽고 사실이 아닌 것을 놓고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하고 ‘이것을 고쳐야 할텐데’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혁파하려는 낡은 고정관념을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서 저의 주변을 포위해 들어온다. 그래서 공직사회는 경우에 따라서는 포위된 조직이다. 함락되지는 않는다.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신분이 보장돼 있다. 그래서 쉽게 함락되지는 않지만 포위돼 있다. 그 포위선에 의해서 국민들과 분리돼 있다. 극복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있게 일할 수도 없고 국민들의 협력을 얻을 수도 없고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올해는 이 장벽을 뛰어넘는 해로 설정해 보고 싶다. 사회는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이끌고 가는 것이다. 옛날에는 왕이 의제를 설정했다. 독재시대에는 독재적 권력이 의제를 설정하고, ‘가자’ 하면 갔다. 물론 그때도 민심이라는 여론이 있기는 있었다. 민심의 큰 흐름을 오랫동안 거역하면 역성혁명이나 폭동에 의해서 무너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의제를 권력이 쥐고 있었다.

지금은 의제를 권력이 설정할 수 있는가. 지금은 대체로 여론의 장이라고 하는 그 장에서 의제가 설정된다. 거기에서 누가 의제설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저는 매체들이라고 생각한다. 매체가 무대 위의 여러 배우가 나와서 각기 연기를 하고 있는데 매체가 어느 쪽을 비추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해도 비추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이 된다. 비추지 않은 것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는 없다. 비추지 않은 가치가 국민적 아젠다로 등장할 수 없다. 비춰주지 않으면 스스로 발광(發光)해야 한다. 오늘 우리 공직 사회가 처해있는 위기가

이것이다. 이제 연출자에게 여기 비추라, 저기 비추라 할 수 있는 시대가 넘어가 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대중적 의제가 여과없이, 왜곡없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 하면 그것 또한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이 권력을 정확하게 오늘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주려는 집요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공복이라고 불리는 우리 공무원 사회의 책임이다.

**변화속도 · 효율은 두 배로**

**해마다 두배씩 가속페달 밟자**

어려운 벽을 뚫고 나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한국사회 미래를 주도해 나갈 수가 없다.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그래서 혁신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 ‘되겠냐’는 패배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자동차가 대중화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전화는 아주 불편하고 의사소통에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정보통신 시대를 열어낸 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의 굵기지 않는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자동차 대중화는 까마득한 1900년에 자동차 대중화를 믿었던 약간 정신이 이상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던 사람들의 신념과 열정에 의해서 열린 것 아니겠는가.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가보자.

지난해 초 제가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바꾸자,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관계로 가자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지만 공무원들을 상대로 설문하고 토론해 본 결과로는 좋아졌다는 것이다. 요즘 전 부처에 관련된 오보숫자가 하루에 두세 개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아마 열 배쯤 됐을 것이다.

저녁 8시 반, 9시부터 고위공직자들이 기사 고치기 위해서 이리뛰고 저리뛰는 일 없죠? 그밖에도 여러 가지 일이 다 고쳐졌지 않나. 안될 것이라고 했지만 됐다. 물론 상당히 많은 대가를 치렀고, 지금도 치르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비판적 기사의 분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있다면 좀더 의도적인 비판기사가 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언제 한번 분석해 봤으면 좋겠다.

이제 반론할 것들은 제대로 반론하자. 의견에 대해서 당당하게 반론해야 한다. 그래서 전 공무원이 홍보요원화 해야 된다는 것이다. 자기가 한 일이 왜곡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우리 공직자들의 사명감,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있으면 단 열 사람이 보는 매체라도 반론을 싣고 또 정중하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과정을 통해 글 쓰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되겠냐가 아니라, 백 사람이, 만 사람이 하고자 하면 되는 것이 역사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올해는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의 속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세상이 변화하니까 공직사회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적어도 변화의 속도가 다른 분야보다 조금 앞서야겠다. 우리가 2012년 2만불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2년 소득이 두 배로 가려면, 적어도 2012년 가기 절반쯤 간 시기에 정부의 효율성은 두 배 정도로 가 있어야 다른 여러 분야하고 합쳐서 2012년에 국민소득이 두 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부는 변화의 성과 결과를 2007, 2008년에 두 배까지 가자. 매년 속도를 두 배씩 내면 아마 정부 효율성이 그때 가서 두 배쯤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설정해 놓고 밀고 가보자.

**토론과 학습으로 창조적 변화를**

## 문제점 해결할 땐 끝장 보자

올해는 변화의 기술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작년 한 해 로드맵을 많이 그렸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로드맵을 통해서 많이 설정됐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갔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아마 밑그림 그리는 시기, 터 파기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그림 그리면서 좀 간 것도 있어야 할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올해는 정말 제대로 가야 한다. 가는데 로드맵만 가지고 가지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반드시 기술이 있어야 한다.

제가 읽었던 책을 소개하겠다.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정말 기술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변화의 기술’이라는 책이다. 8단계의 변화의 과정들을 소개해 놨는데, 빠진 것이 하나 있는 것 같다. 리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부 녹여서 설명하고 따로 조건으로 뽑지 않았지만, 그 책이 당연히 전제한 것은 유능하고 의지에 불타는 열정적인 리더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리더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공직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경험을 익히고 공부도 했다. 여러분들이 리더다. 다만 그러면서도 새로운 기법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변화의 기술’을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기 바란다. 오늘 여러분 토론 결과로서도 그 내용이 많이 나와 있다. 우선 위기감을 조성하라는 것이다. 위기를 정확하게 보여 줘라, 우리가 지금 어떤 위기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 줘야 한다. 그러면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비전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변화의 선도그룹을 만들어야 하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조직의 문화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일을 먼저 성공시켜내고, 변화를 굳히고 등등 대강 그렇다.



어떻든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매우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이 나와야 한다. 아주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과정은 결국 토론과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토론과 학습을 해나가야 한다. 토론이 성공하자면 토론하는 사람들의 자세, 역량, 자질이 우수할수록 좋다. 모든 사람들이 변화의 선도자가 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이 변화의 선도자가 되는가, 결정된 것을 밀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변화의 과제를 찾아내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자.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하자. 이 문제를 적당하게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자. 같은 원인이 반복되지 않게 끝장을 봐야 한다. 아주 뿌리를 뽑아야 한다.

아카시아는 아무리 가지를 잘라도 또 돌아나게 돼 있다. 우리한테 나타함이나, 관료주의나, 부처이기주의나 또는 독선 등의 자세가 있는 한 그로부터 발생하는 사고는 다시 생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발되지 않는 갈등이면 갈등이 재발되지 않아야 하고 부정이면 부정이 재발되지 않는 근본적 해결책에 접근해야 한다. 뿌리를 뽑고 우리가 만든 새로운 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한다. 성공한 사례는 그것이 제도로 문화로 뿌리가 내리게 해야 한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접근해 가면서 일을 할 때라야 계장급에서 과장급에서 국장급에서 훨씬 진전된 그런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사례는 반드시 벤치마킹**

**공직사회 자신감은 스스로 회복**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정부 안에서 성공사례를 찾아낼 때 참여정부 이전의 성공사례도 꼭 발굴해 주기 바란다. 왜냐하면 참여정부 이전에도 상당히 많은 성공사례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다만 체계적으로 분석하지도

평가하지도 않고 ‘어디 잘한다고 하더라’ 하는 정도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좋은 모범사례로 쓰이지 않고 있다. 왜 굳이 정부가 한 일을 찾아야 하느냐, 그것은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해낸 모범적 성과를 분석해서 그 성공사례를 공무원들이 공유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해수부 장관할 때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범사례를 발표해 보라고 하니깐 시원치 않다. 첫째로 발표시간을 짧게 주어서 번개 불에 콩 구워 먹듯이 설명하니깐 전달이 잘 안되고, 둘째로는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 성공의 과정에 대한 소상한 기록이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학문적으로 분석하지도 않으니 설명할 때 궁하다. 무엇이 진짜 성공의 요인인지, 하나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것이 충분히 전달되지 안으니까 모범사례가 제대로 빛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실제로 몇 개의 성공사례를 선별해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과 함께 분석을 해서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많은 외국 정부의 성공사례가 나올 때마다 한국은 왜 못하느냐 우리도 한번 하자. 한국도 성공해서 국민들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을 주고 싶다. 공직자들이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었을 때 국민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수년간 저는 공직사회 바깥에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공직사회 역할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 그야말로 남 못지 않은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비하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밝게 볼 수 있겠나. 공직자들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전 국민들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우리 스스로 그 점에 대해서 발굴해서 확신을 가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학습조직 말씀드렸지만 제가 후회스러운 것은 좀더 많은 토론을 과감하게 할 것을 그랬다 싶다. 대통령이 말 많다고 하고 모든 일에 대통령이 다 나서면 무슨 일이 되겠느냐 하고 자꾸 그런 비판이 있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한번 해 보고 싶은 토론을 제대로 못했다. 올해는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안 하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들이 부처에서 활발하게 해 버리면 대통령이 할 수가 없다. 날을 잡고 싶어도 우리 부처에 오늘 토론이 있어서 참석 못합니다 하면 저는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한 달에 한번쯤 하도록 하겠다.

## 실국장 부처간 이동 인사

### 부처 뛰어넘는 ‘범정부 시각’ 갖추길

곧 이어서 실국장급 인사가 있을 것이다. 연말에 해야 하는데 국회가 늦어지고 또 장관인사도 늦어지고 인사도 다 늦어졌다. 실국장급 인사를 하게 될 때 부처간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원래 많은 논의를 거쳐서 합의에 이른 것이라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취지를 잘 살려서 성공적인 인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부처간 이동, 실국장의 부처간 이동이라는 것이 고위 공무원단이라고 해서 부처 시각을 뛰어넘는 범정부적 시각을 갖는 공직자들을 더 많이 양성하자는 취지도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더 우수한 사람이 더 역량 있는 사람들이 발탁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한다. 아울러 전문적이 일반 고위직으로서 관리자가 되는 경우 이외 전문직의 코스는

순환보직이 아니라 같은 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하고 거기에서 아주 전문적인, 세계 어느 회의에 나가도 아주 실력을 인정받는 전문직을 양성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 이것도 인사 분야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란다.

그 자리에서 그 분야의 일만 하면서도 적어도 그 영역에서 세계 일류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아울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부처 업무보고**

### **지속적 관리시스템 마련해야**

부처 업무보고를 하게 될 것이다. 부처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가 인사부분에서의 로드맵이라든지 또는 부처의 서비스혁신을 위한 것이라든지 정보공개 과정에 있어서 혁신이라든지 또는 대 국민 커뮤니케이션의 혁신이라든지 또 혁신 그 자체를 관리해 나가는 혁신 프로세스라든지 많은 부분에 과제들이 이미 로드맵으로 결정돼 있다.

그런 여러 영역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보고해 주고 특히 인사에 있어서는 실제로 부처 자율이 얼마나 됐으며 여성 영역이나 이공계 영역이나 또는 지방인재육성이나, 이것은 해당되는 부처도 있고 안되는 부처가 있겠지만 지방과 지방대학육성과 관련된 그런 목표들이 실제로 얼마나 됐는지 꼭 챙겨주시기 바란다.

작년도 업무보고서를 보고 또 그 동안에 국무회의라든지 그밖에 결정사항이나 지시사항 중에서 중요도가 있는 문제들을 전부 정리해 보고 중요한 것은 크게,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은 더 중요하게, 금년도 사업계획이 중요한 것은 목표를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 또 작년도 목표가 잘 된 것 또는 진행중인 것, 폐기해야 될 것 대개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정리해서

매년 지나가면서 전년도와 관계가 없는 업무보고가 되지 않도록, 전년도 보고했던 업무목표가 올해 보고에서 실종돼 버리고 되지 안된지도 모르게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크든 작든 정부의 방침으로 결정된 것은 그 과제가 지속적으로 관리돼 나가고 정권이 바뀔 때도 그대로 목록을 인수 인계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처 업무보고를 준비해 달라. 그러면 분량이 많아서 어떻게 하겠냐, 요약본으로 보고 한다든지, 나머지는 서면보고로 하고 구두보고는 선별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정책목표의 성취 결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할 일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 우리 프로세스 혁신에 관한 것 인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문의 프로세스 혁신에 관한 것은 그것대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각 부처에 해당되는 만큼 그렇게 보고를 해 주기 바란다.

제가 부처 장관이라면 제 얘기를 들으면서 답답할 것 같다. 어떻게 다 보고를 할까 답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어 가는 데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보고 하면서 크게 시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 왜 못 했냐고 그렇게 타박주는 일 별로 없을 것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본다하고 다 한번 정리해 주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이제 점수도 잘 받도록 하자.

국민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정부에서 2004년도에 정부혁신업무를 했다’라는 이력서를 들이밀면 혁신의 전문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성공해 주기 바란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올해는 한번 더 잘해 주시기 바란다.